



천원의 따뜻한 한 끼, 산업단지의 아침이 달라집니다.

- 산단 근로자에게 단돈 천원에 아침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중,
“아침이 든든해졌어요.” 등 산단 근로자들도 만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부터 산업단지 근로자의 건강한 아침 식습관을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5년 10월부터 파일럿 사업으로 5.4만 식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총 90만 식 지원을 목표로 29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가 1천원을 부담하면 산단 내 기업 또는 협의회가 구내식당,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국산 쌀·밀·콩 등을 활용하여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2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2천원 수준)은 지방정부와 해당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소의 사업자 중 23개소는 비수도권 소재 산단이다. 중소기업은 28개소이며, 여기에는 단체형 사업자 9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단체형 사업자는 기존에 조식을 제공하지 못했던 산단 내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급식의 형태로 참여하는 사업자로써, 산단 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 잘 맞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기업 근로자들은 “출근 전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저렴한 가격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함께 식사할 수 있어 회사 내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변상문 식량정책관은 “동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낮은 산단 내 근로자의 건강한 식생활과 업무 효율성 증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산단 근로자들의 조식 문화가 지속적인 쌀 소비로 이어지도록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누리집(<http://www.epis.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 붙임 1. 2026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기업 현황
 2. 2026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관련 주요 사례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	책임자	과 장	허동웅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전창희 (044-201-1822)

붙임1
2026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기업 현황

* 단체형: 산단 입주기업 협의회를 통해 단체급식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

개별형: 식수인원 관리, 정산 등 조식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자체 개별 입주기업

연번	지역	기업/단체명	운영유형
1	강원	(주)케이메디캡	개별형
2	경기	(주)초원식품	개별형
3	경기	디엑스솔루션(주)	개별형
4	경기	나비텍스타일 이노베이션	개별형
5	경기	(주)엘케이엔지니어링	개별형
6	충남	(주)성합	개별형
7	충남	(사)석문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단체형
8	충남	광성강관공업(주)	개별형
9	충남	광성테크 주식회사	개별형
10	전북	대륜산업(주)	개별형
11	전북	(주)푸드몬스터	개별형
12	전북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단체형
13	전북	(사)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단체형
14	전북	(유)주밀금속	개별형
15	전북	캐스코(주)	개별형
16	전남	(유)그린피드	개별형
17	전남	LS솔루션	개별형
18	전남	농업회사법인 동우(주)	개별형
19	경북	(주)경흥공업	개별형
20	경북	(주)귀뚜라미	개별형
21	경남	(사)김해테크노밸리산업단지협의회	단체형
22	경남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단체형
23	경남	월림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ENG)	단체형
24	경남	(주)지에프에스	개별형
25	경남	(주)참다올푸드	개별형
26	서울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서울	단체형
27	인천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단체형
28	광주	광주광산지역자활센터	단체형
29	충남	(주)동서기공	개별형

□ 김해테크노벨리산업단지협의회(17개 기업, 일평균 식수 213명, 1식 단가 5천원*)

* 정부 2천원 + 지방비 2천원 + 근로자 자부담 1천원, 기업부담 없음

김해테크노벨리는 올해 2.2일부터 계약업체를 통해 주문제작한 간편식(김밥, 주먹밥 등)을 각 회사로 배달해주는 형태로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 계약업체는 김해시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활용해 조식을 제조하는 업체로, 지역농가의 판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식단가는 5천원인데,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경남도+김해시=2천원)에 힘입어 산단 내 중소기업들이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시행 당시 193명 수준이던 일평균 식수는 3월말 기준 213명으로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 A씨는 "평소 아침먹을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1천원에 끼니를 챙길 수 있고, 업무 전 직원들과 다양한 얘기도 나눌 수 있어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제공되는 조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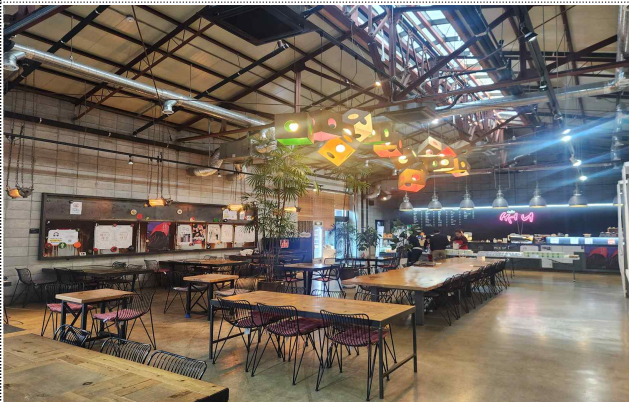


< 근로자들이 조식을 섭취하는 모습 >

□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일평균 김밥 컵밥 샌드위치 200개 제작·판매, 1식 단가 4천원*)

* 정부 2천원 + 지방비 1천원 + 근로자 자부담 1천원, 기업부담 없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에서는 '25년부터 기부금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6년부터 정부 사업에 지원하여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매주 온라인으로 조식을 신청받고 있으며, 김밥·컵밥·우리밀 샌드위치 중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조식판매는 팔복예술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씨니' 카페에서 이루어지며, 조식시간에 한해 커피를 1천원에 제공하고 있다. 본 사업을 운영중인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이아름 간사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운영지원 덕분에 저렴한 식단가로 양질의 조식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조식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식 지원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 조식제공 카페 '씨니' 전경 >



< 조식 김밥 >

□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사(25개 기업, 일평균 식수 300명, 1식 단가 5천원*)

* 정부 2천원 + 기업부담 2천원 + 근로자 자부담 1천원, 지방비 지원 없음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사(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기업 25개소를 대상으로 인근 소상공인(안동김밥 등)과 협력하여 조식을 공급하고, 단기 인력을 활용해 각 기업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지난해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업을 총괄하는 연합회의 정정미 차장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는 IT·지식기반 기업 중심 산업단지로, 다수의 소규모·영세 기업이 밀집해 있고, 젊은 근로자 비중이 높아 조식을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따뜻한 조식을 접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지방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보다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어 조식문화 정착,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구로디지털단지 전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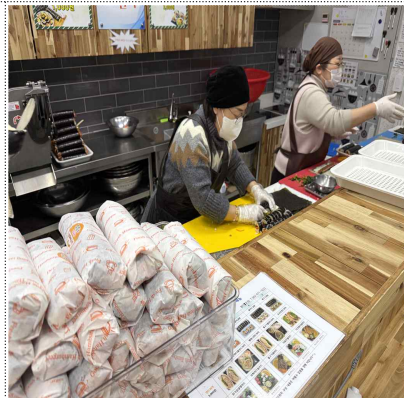


< 제공되는 조식 >

□ 광주광역시 근로자 조식지원센터(일평균 김밥 300개 제작·판매, 1식 단가 5천원*)

* (당초) 4천원(지방비 2천원 + 근로자 2천원) → (사업참여 후) 5천원(정부 2천원 + 지방비 2천원 + 근로자 1천원)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부담 1천원 경감, 조식의 질 향상 추진 중

광주광역시는 '23년부터 관내 첨단산단, 하남산단에 근로자 조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근로자 조식지원센터에서 김밥·샌드위치·샐러드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근로자가 센터를 방문하여 2~3천원에 사먹는 구조인데, '25년 정부의 파일럿 사업에 참여하면서 식단의 질을 높였다. 근로자 A씨는 “기존에는 일반김밥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참치김밥, 어묵김밥 등 메뉴가 다양해졌고, 식사비도 1천원으로 줄어들어 만족도가 높다” 라고 말했다. 본 사업을 총괄하는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장수진 팀장은 “정부 지원을 계기로, '26년부터 조식센터를 평동산단까지 확대하여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전남지역 내 많은 산단 근로자가 따뜻한 조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조식지원센터에서 조식을 제공하는 모습 >

< 제공되는 조식(참치김밥) >